

나눔터

보관용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날: 1993년 7월 30일/ 계간발행/ 주소: 서울 서초구 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전화: 02)525-5837~8



1993년 7월 2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앞 시위

차 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내가 경험한 성(유명숙)	11
여기는 상담실	4	읽어봅시다	
지상상담	5	나눔터 애깃글/불안정한 이십대들의 딜레마(김명순)	12
상담은 이렇게	6	성문화 읽기	13
이렇게 생각한다	7	미리보는 상담소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마련을 위한 제언(조성숙)		귀 기울여 봅시다	14
성폭력 사건일지	7	인간해방을 위한 서론	
		대동제의 교훈	
특집:함께 생각해 봅시다	8	인사드립니다(상임이사 민병진)	15
이 땅에 발을 딛고 굳건히 서야합니다(이나미)		나눔터 알림판	
연령별 성교육(정경자)	10		



개소 2주년 기념

“나눔과 모음의 한마당”가져

본 상담소는 개소 2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9일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나눔과 모음의 한마당”을 서울 YWCA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힘을 ‘모으는’ ‘나눔과 모음’의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나눔마당에서는 최영애 소장의 개회사와 강기원 대표이사 인사말, 김정숙(정무 제2차관), 조영황(변호사), 이문우(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명임(주부)의 격려사가 있었다. 네 분 모두 그 동안의 상담소 활동을 치하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다. 특히 평범한 가정주부가 격려사를 함께 해 신선함을 주었다.

이어서 그 동안의 활동보고와 함께 오는 9월부터 문을 열게 될 성폭력위기센터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그리고 상담부와 조사연구부 공동으로 준

비한 2년동안의 상담사례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2년동안의 (1991.2~1992.12.) 상담 총 1,987건 중 63.4%가 성폭력 상담이었고, 그중 성폭행이 72.9%, 성추행이 27.1%였다. 신고율은 29%였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70%로 나타났다. 피해여성들은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50.8%였고,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28.7%나 되어 충격과 함께 어린이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동안 문제제기조차 되지 못했던 친족성폭력이 210건이나 되어 본 상담소 전체 성폭력 상담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부 모음마당은 참가자 전체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어릴때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한 내담자의 육성 ‘침묵을 깨고’를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진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한판’에서는 무용가 홍윤선씨의 춤마당, 극단 ‘천지’의 마당극, ‘살판’의 사물놀이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의 어둡고 침울함에서 밝고 힘차게 바뀐 분위기로 신명나는 장면들과 폭소,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을 위한 오늘의 노래’에서는 다함께 노래부르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이 일어나 손을 맞

잡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강강수월래를 했다.

이날 행사는 진행에서의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기존의 행사 형태인 출연진은 보여주고 관객은 보기만 하는 이분화된 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마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본 상담소와 뜻을 같이 하면서 준비과정부터 열심히, 또 무료로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이렇듯 상담소의 내외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다짐하는 한마당이 되

었고, 특히 2주년을 기념하며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상담원들이 손수 준비한 떡과 다과 등 잔치음식이 마련되어 흥을 더했고, 기존의 자료집과 새로 나온 두 개의 자료집이 판매되었다. 새

“
지금까지의 활동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모아
피해여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할 때 이다.
”

자료집은 본 상담소의 설립배경, 조직, 활동과 지난 2년간의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개소 2주년 기념자료집」과 작년에 상담원 교육을 받은 2기 상담원들이 만든 「새로운 탄생을 예고한 두개의 강의」 자료집 이다.

이제 본 상담소는 우리사회의 여성 억압의 현실을 드러내고 풀어가는 노력을 함으로써 평등한 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을 시작하여 3년이란 세월을 맞고 있다. 오는 9월이면 24시간 운영되는 성폭력위기센터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모아 피해여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할 때 이다. 이를 위해 우리 상담소 모든 가족들은 더욱 깊은 자매애를 발휘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정리 : 이 미 경(본 상담소 상담원)

성폭력대책 관련입법에 관한 공청회 열려

성폭력대책 관련입법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여성계에서 올해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앞두고 이날 가진 공청회는 국회차원에서는 처음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였다.

그러나 민자, 민주, 국민 3당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의 특별법 시안이 나온 상태에서 일부 발표자와 법사위원들은 굳이 성폭력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특별법이 없어서 생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여 '과연 특별법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자아냈다. '마치 성폭력국가 기본법을 만드는 것 같다'는 한 의원의 개탄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성폭력특별법제정을 내놓았던 사실을 무색케 할 정도였다.

이러한 법사위원들의 태도에 맞서 최영애 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 위원장이 현장에서의 사례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실상과 법이 갖는 한계를 역설하였다.

정신대 수요시위

지난 6월 9일 정오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본 상담소 주관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73차 수요 시위가 있었다. 개회사와 시낭송에 이어 경과보고 후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집회 후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홍보전을 40분 가량 진행하고 1시간 만에 행사를 마쳤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날은 일본황태자의 결혼식으로 대사관 휴무일이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제작에 들어가

본 상담소에서는 급증하는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6월부터 발족된 비디오 준비팀에서는 기존의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Feeling no Feeling yes, Scared Silent, Five out of Five, 만화로 보는 성교육 등)를 함께 보면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의 방향을 잡았다.

만 5세에서 만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비디오는 자아 존중감, 자기보호 의식을 키워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9월중 완성할 계획이다.

특별초청강연 -사회 변화를 위한 위기센터와 쉼터의 역할 및 기능- 상황리에 마쳐

본 상담소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 주최로 지난 6월 15일 전진상 교육관에서 특별초청강연이 있었다. 김현민(이대 행정학과)교수 통역으로 미시진 주립대 범죄학 교수인 Merry Morash가 "사회 변화를 위한 위기센터와 쉼터의 역할 및 기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이외에도 한국여성의전화, 전주부남센터(가칭), 그리고 본 상담소의 위기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M.T(숙박교육)로 친목 다져

본 상담소는 지난 6월 26, 27일 양일간 분당에 위치한 최영애소장 자택에서 숙박교육을 가졌다.

상담원, 제3기 교육생, 사무자원활동자, 발기인, 상근자 등 30여명의 상담소 식구들이 참석한 이번 숙박교육은 반주에 맞춰 노래부르기, 볼링, 산책, 게임, 이야기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첫날밤을 거의 지새우며 이어졌던 많은 대화, 그리고 다음날 신선한 바람과 함께 한 앞동산의 산행은 상담소 식구들의 친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만나는 제3기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성폭력위기센터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판매 행사 개최

'성폭력위기센터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판매 행사가 세프라인 후원으로 지난 6월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서초동 세프라인 탑스 전시장에서 있었다.

여성신문사와 공동 주관으로 실시했던 특별판매 행사는 법률상담·의료상담·다함께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

께 진행되었다.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앞 시위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는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졌다. '여성계 의견 반영없는 졸속입법 반대!'와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제정!'이라는 구호로 1시간 동안 집회와 가두홍보를 벌였다. 이날은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날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세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성특위는 친고죄 폐지없는 법안과 민간단체 규제조항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단일안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제 3 기 상담원 교육 마쳐

지난 7월 6일 제3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총 16주간의 이론교육을 끝낸 제3기 예비 상담원들은 7월 12일 부터 2개월간 상담실습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상담실습교육이 끝나면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성폭력상담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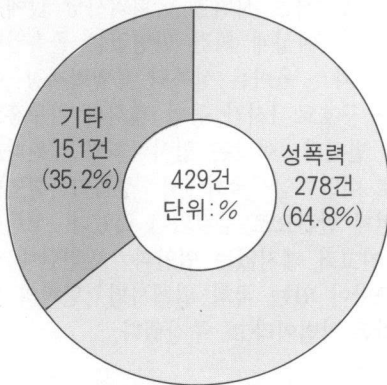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 열리다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제정과 성폭력 추방을 위한 문화제'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 성폭력특별법이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올바른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범여성 사회단체의 의지를 모으는 한마당이었다. 춘극, 노래공연, 서울 지방경찰청의 호신술 시범, 장애우대학 수화연구회의 수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일반시민, 단체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이상은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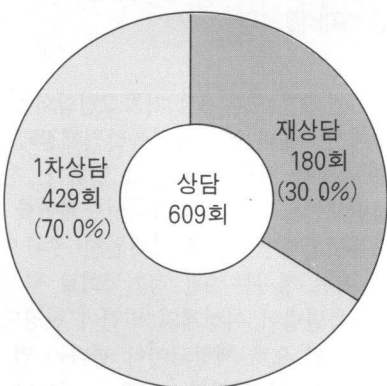
93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본 상담소에는 총 429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609회(재상담 포함)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429건의 사례 중 성폭력 사례는 278건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그림 1) 이는 지난 3월까지 성폭력 사례가 60.5%를 차지한 것에 비해 4%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그림 1〉 상담건수

또한 재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까지는 11.9%였던 것에 비해 올 1월부터 5월사이에는 3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이는 상담원과 내담자, 그리고 의료, 법률 자문위원간의 꾸준한 연계와 더불어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유도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그림 2〉 재상담비율

도 이러한 재상담으로 이끄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강간사례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73.4%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3)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지난 3월까

〈표 1〉 월별 상담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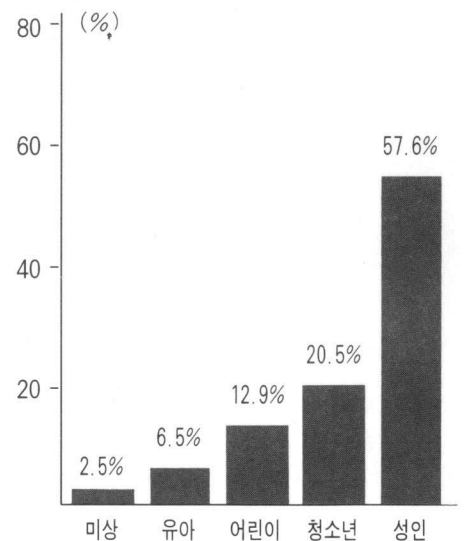
1993년 1월 ~ 1993년 5월

	유형	가해자			피해자				미상	소계
		성인(20~)	청소년(14~19)	어린이(8~13)	유아(0~7)					
성폭력	성폭행 189 (68.0%)	일반강간 173 62.2%	아는사람 127 45.7%	친족(10.8%)	아버지, 오빠	1	5	8	1	16
				친·인척		4	7	2	1	14
				동네사람(7.9%)		12	5	2	2	22
				데이트 상대(6.1%)		13	4			17
				직장상사, 동료(9.7%)		27				27
				교사·강사(1.1%)			3			3
				기타(10.1%)		22	3	3		28
				모르는 사람(12.2%)		21	7	5	1	34
				미상(4.3%)		3	5		2	12
				윤간(5.8%)		7	9			16
성추행	일반성추행 89 (32.0%)	아는사람 41 14.7%	친족(4.0%)	아버지, 오빠		1	5	2	8	
			친·인척		2	1			3	
			동네사람(4.0%)		1	1	2	7	11	
			데이트 상대(0.4%)		1				1	
			직장상사, 동료(1.8%)		5				5	
			교사·강사(1.8%)		1	2	2		5	
			기타(2.9%)		8				8	
			모르는 사람(2.9%)		4		3	1	8	
			미상(1.1%)				1	2	3	
			강간미수(2.5%)		5		1		7	
남성피해	6 (2.2%)		21	1	1		1	24		
			2	3	1			6		
계				160(57.6%)	57(20.5%)	36(12.9%)	18(6.5%)	7(2.5%)	278	
기타	성문제·순결 인신매매 아내구타 혼인빙자 장난전화 기타	100.0%	55.6%	62	18	3	1		84	
			1.3%		2				2	
			4.0%	6					6	
			4.6%	6			1	7		
			12.6%	9	6		1	3	19	
			21.9%	24	8		1	33		
계 (건수)		107	34	3	2	5	151			
합계(건수)			267	91	39	20	12	429		
재상담								180		
총계(회수)								609		

〈그림 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지는 20세미만이 38.7%였던 것이 5월까지의 43.4%로 증가하였고, 피해자 중 0-7세가 1.9%였던 것이 6.5%로 증가함으로써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요즘 5-7세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학원 건물의 화장실 등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

가 많이 의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그림 4〉 성폭력 피해자 연령

부설유치원 교사들
성추행한 부주지 구속

사찰에 유치원을 설치 운영해오면서 유치원 교사 4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온 서울 B사찰 부주지가 구속되었다.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였으나 종교집단 내의 폐쇄적인 위계구조와 그까짓 일(?)로 사건을 벌여 놓느냐는 주위의 물이해와, 모함이라 우기면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변호사를 사는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유치원 원장과의 지속상담을 통한 대책 마련으로 서울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와 연계하여 해결되었다.

티셔츠 마크 하나로 딸 성폭행범
찾아낸 어머니

귀교길에 남학생에게 끌려가 공사중인 빈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딸이 가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 새겨진 학교 마크를 기억해내 이천명의 학적부를 뒤져 범인을 찾고 범행을 자백 받았다.

신문 드러내기를 두려워 하고 피해사실을 숨기려던 부모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성폭력을 없애는데 중요한 일이다.

현재 피해자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있다.

공중목욕탕에서 때밀이가
남자어린이를 성추행

공중목욕탕에서 어린이를 비누칠하던 때밀이가 어린이에게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상담을 해왔다.

시경민원실에 연계한 결과 형사가 잠입하여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하여 구속하였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상상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아 드릴게요.

문

26세의 여성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과 어렵지만 건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삼년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혼자 올라와 자취하며 회사에 다니던 중 2년 전 봄에 50대 후반의 사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후로도 몇차례 요구했으나 저항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몇달 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찾아가 따졌더니 병원에 데려가 중절수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부하를 시켜 월급이라면서 몇번 보내왔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나 오빠가 있었다면 가만히 안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미리 인적사항을 알아보고 뒷타이 없을 사람만 골라 이미 여러번 여사원을 농락해왔다고 합니다.

그후로 저는 어떻게 하면 그자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꼭 차 있습니다. 그는 “다른 애들은 그러고도 다 시집가서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생활비도 몇번 주었는데 그게 강간이나 고소를 하겠으면 해봐라, 무고죄로 너를 집어넣겠다. 내가 손써 놓으면 어렵도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분해서 부인을 찾아갔더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다. 네가 포기해라”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하고, 결혼한 자식들에게 그의 파렴치함을 폭로해 보기도 하였으나 끔찍도 안합니다.

고소도 안된다고 하고, 내가 당한만큼 괴롭혀줄 방법도 없고, 매일밤 그에게 쫓기거나 그를 죽이는 악몽으로 시달립니다. 이러다가 미쳐버리든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답

이년 동안이나 혼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지고 지내왔군요.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이용하여 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괴롭히는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력감과 피해의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지금 모든 삶의 초점이 그 사건에 맞추어져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의 실패가 온 삶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점과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실하게 살려는 의지와,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당신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를 못살게 하는 것도 복수지만 ‘나는 피해자다. 더 이상 그 일로 상처받지 않겠다. 너 같은 자에게 짓밟혀 끝나기에는 나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며 떨치고 일어나는 결심도 용기입니다. 이 심리적인 극복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울타리가 될 남자어린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힘을 북돋워주고 당신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을 찾아 보십시오. 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도 만나서 서로의 고통과 분노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꾸준히 도울 것입니다.

상담 : 조 중 신(본 상담소 상담부장)

대리상담시 내담자 유형과 대응

박 춘 선(제2기 상담원)

본 상담소 내담자 분류에 의하면 피해자 대리상담이 46%로 상담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 상담자는 피해자와 관계를 맺는 개인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 유형이 나누어지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리상담시 내담자 유형별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사례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1. 대리상담의 특징

대리상담이란 어린이성폭력의 경우에 두려움과 무기력증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피해자, 임신이나 불안한 심리 상태로서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본인 이외의 사람이 상담을 해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상담시의 문제점은 대리상담자가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상황을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조치보다는 법률적 조치와 피해 보상 등 가시적 조치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2. 내담자의 대표적인 유형

1) 부모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서 부모의 대리상담은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이 당한 것 이상의 계속되는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해결에 적극적인 부모가 있는가 하면, 피해의 심각성을 회피하는 부모 - 대개 아버지나 친인척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 도 있다.

이러한 가족 내 성폭력의 경우, 가족들이 자신들의 체면이나 기타의 이기적 이유로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계속적 회생을 요구하려고 할 때, 절대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해 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비밀로 할 것 인지를 고민하는 어머니의 대리상담인 경우에는 부부관계, 가사 결정권의 상황을 파악하여 각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 면접상담의 경우에는 가족내의 역학관계, 의식의 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화로 하는 단기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내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파악하지 못한 문제는 상담원이 유도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남편, 애인

아내나 애인의 성폭력, 혼전관계 등에 대해 호소한다. 이러한 대리상담자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바라보는 심리상태에서 부부나 애인관계를 지속시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피해여성에 대한 애증과 가해자에 대한 강한 복수심을 갖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에 대한 온당치 못한 의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남의 이목에 몹시 예민하며, 법적처벌 방법이나 보상액수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 경우 상담자는 대리상담자에게 가장 큰 피해자는 피해여성임을 주지시키면서, 내담자가 우려하는 법적조치를 알려주고 그와 함께 내담자 본인과 피해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피해여성의 상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상담해야 한다. 이때 더욱 좋은 방법은 피해여성과의 상담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3) 아는사람 (친인척, 선생님, 친구, 기타)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기를 꺼려할 때, 피해자의 부모가 대신 상담해 주기를 원할 때,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의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어 돕고자 할 때, 또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선생님이 대리상담자일 경우는 피해 어린이에 대한 일반적 대응과 함께 다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연구한다. 직장동료일 때는 직장내에서 단결된 힘을 지속시키며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방법에 역점을 둔다.

이웃사람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성폭력이 개인적 차원의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강력범죄임을 주지시켜 동네의 이야기거리로 흐르지 않도록 할 것을 알려준다. 형제 친인척에게는 가족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을 주는 반면 지독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최후의 가시적인 해결책으로 법적처벌, 피해보상이 있지만 그보다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삶에 마음을 써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마련을 위한 제언

조 성 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9월 정기국회로 미루어져 좀더 논의 할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폭력특별법 단일안이 현행 형법에서 별로 개선된 것이 없고, 여성계 의견이 무시된 졸속입법이라는 여성계의 반대에 부딪쳐 취해진 조치인 것 같다. 앞으로 충분한 토의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함이 없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안의 수정, 보완을 위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주요 쟁점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가 제시하는 주요 쟁점은 친고죄 폐지, 비동의 간음죄(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신설, 성폭력상당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피해자 또는 그 친권자의 고발에 의해서만 입건 가능한 현행법의 친고죄는 신고율을 떨어뜨려 성범죄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친고죄 존속론자들은 사회적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것은 정조관념에 입각한 좁은 시각으로서 성폭력 상습범을 양산할 뿐이다. 또 고아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근친성폭력의 경우에 법적대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대신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고죄 폐지에 따르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성특위가 신설을 주장하는 '비동의 간음죄'는 지금까지의 성폭력사건 처리관행보다 한발 앞서 나간 것이다. 현행법 테두리

에서는 특수강간, 집단강간, 강간치상 등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관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정에서는 흔히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닌가 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판단기준이 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예컨대 어린이, 장애인, 고아원 등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비동의의 간음'에 해당된다. 이밖에 잘 아는 친지사이, 근친간에 일어나는 강간, 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도 이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어렵사리 고발을 해도 가해자의 강제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리되기 일췌이고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동의의 간음죄'를 규정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강제적인 성관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한다.

법사위시안은 또한 성폭력상당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해 규제입법이란 인상을 질게 풍긴다. 성폭력상당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를 화간이나 강간이나, 또는 정조유린이나 아니나와 같은 정조관으로 다루거나, 더군다나 남성의 불가피한 생리현상쯤으로 생각하는 남성적 시각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 성범죄를 인권침해로 보는 인식의 바탕위에서 특별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성폭력 사건일지

다음은 93. 5. 1 ~ 93. 7. 10 까지의 성폭력 사건입니다.

· 20대 남자가 국교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손발 묶은 채 불태워 살해 - (5.4 한겨레)

· 20대 남자와 국민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뒤 혀를 자름 - (5.9 중앙, 조선, 한겨레)

☞ '성폭행 발생률 세계 제3위'라는 보고 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린이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어린이들이기에 피해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 어린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

·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한 여성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뒤 성추행 - (6.23 한겨레)

☞ 일부 우리나라 행정관리직 남성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공무원집행권 이외에 덤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더 있다. 이름하야 '성폭행특별권'.

· 14년간 폭력남편에게 시달렸던 아내의 '우발살인'에 징역5년 선고, 여성계에서는 죽음의 공포에 항거한 정당방위라고 주장 - (7.9 여성신문)

☞ 정당방위란 죽음의 위협에서 최대한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부부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지 않은가! 이제는 더 이상 집안문제, 부부싸움으로 치부되는 가정폭력의 실상이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 땅에 발을 딛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주는 글

이 나 미(본 상담소 의료자문위원)

쓸데 없는 감상과 자학으로 젊은 날을 허비해 버리기엔 살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제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살아 남아야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뿐입니다.

김양에게

윤간을 당한 후 삶의 모든 힘을 잃었다고 호소하는 김양의 전화를 처음받고 저는 우선 매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가까운 서울도 아니고 먼 지방에서 학교에 나가고 있어 서울로 올라 올 수 없다는 귀하의 말을 감안해 가능한 성심성의껏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화로 환자와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너무나 다급하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컴퓨터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는 상담이란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의존심이나 갈등만 더 키우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전화상담이란 환자가 의사를 도저히 찾아 갈 수 없는 처지일 때 편법으로 쓰는 거지요. 가끔 환자 대신 보호자들이 와서 약을 타 가려고 하면 권위를 내세우는 의사들은 막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치료라는건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표정, 몸의 세밀한 움직임, 의사를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제대로 되는 거니까요. 또 자기가 필요하면 아무때나 도움을 청하고 제멋대로 치료를 중단해 버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전화상담이란 성공하기 매우 어렵지요.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규칙적인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의사를 통해 연습해 보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난 김양의 나약하고 감상에 빠진 무기력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강간, 특히 윤간이란 건 자신이 전부 파괴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임엔 틀림없습니다. 불이 나서 가족이 다 죽은 경우, 큰물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 못지 않게 강간이란 자기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사정없이 파괴된 것이기에 빨리 추스리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강간 피해자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해하며 자주 화들짝 놀라곤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자신을 함부로 다루기도 합니다. 자진해서 사창가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아무 남자와 난잡한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자기는 이미 더럽혀진 몸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강간범들의 파렴치함을 생각하면, 피해 여성들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능지처참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겠지요.

그러나 김양, 그렇게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자리에서 강간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는 일단 나중에 얘기 해보기로 하고 우선 피해자의 처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강간을 당했으니 나는 이미 끝난 몸이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나 자신을 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순결이란 게 뭐길래, 깨끗한 육체란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강간 한 번 당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인간성을 헌신짝처럼 버린단 말인가? 자기를 무슨 일회용 컵처럼 생각한다는 말이나? 일생 한 명의 남자에게만 써서 버릴 물건이란 말이나? 이런 생각이 목구멍으로 울컥 치밀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손이 한 번 닿았다고 해서 유방을 칼로 잘라 자결한 여성, 손 한번 잡혔다고 해서 자기의 팔을 벤 우리의 조상들. 그들이 과연 칭송받을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순수한 처녀성이 부녀자들의 정절을 강요하는 건 실은 우리 여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억압했고 착취했던 이데올로기가 아닐까요?

순결한 결혼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과 완벽한 결합을 하고 그 관계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것, 참으로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남녀 관계는 책이나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양의 남편 될 사람이 결혼 전에 완벽하게 동정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남편은 창녀에게 자기의 동정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나는 강간당했기 때문에 더럽혀진 몸이다.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무엇보다 그런 순백의 남녀 관계 그 이전에 인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세상은 자꾸 복잡해지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정조 관념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자유스런 시대에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자포자기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강간 가해자와 자기를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간범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확대하는 것이지요

강간 당한 것은 김양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그것 때문에 김양이 벌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떳떳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진술을 하게 되면 당당하고 씩씩하게 하십시오. 만약 비정한 수사관들이 김양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면 큰소리로 비난을 하고 항의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누굴 죄인 취급하느냐. 포르노 영화 보는 기분으로 취조하고 있느냐.”라고요.

잘못을 한 건 강간범들이지 김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 김양을 죄인 취급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교정해야 합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씨를 보십시오. 얼마나 떳떳하고 씩씩합니까. 자기 자신, 주위의 이상한 눈초리의 표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에 자신이 당한 일을 얘기한 그 용기 덕분에 실은 우리나라 민주화가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을 그녀는 해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도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 김양 정도의 어리고 순진한 처녀였습니다. 김양의 마음 속에도 그녀와 같이 당당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땅에서 또다시 그런 억울한 일, 그런 추잡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내 동생, 내 딸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 쉽게 말한다고 공격하지 모르겠군요.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해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김양의 아픈 마음의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건, 김양은 그 누구 못지 않은 존엄한 인간이며 스스로의 정신과 육체를 귀하게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기 자신을 파멸시켜야 하겠습니까? 남들에게 동정이나 받으면서 사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지한 일반인들의 선입관 속에 빠져 익사해 버린 후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김양.

이 땅에 발을 딛고 굳건히 서야 됩니다. 절대로 나약해지고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강간 당한 사건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조 이상으로 소중히 지켜야 하고 가꾸어야 할 덕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순수한 정신이고 진실한 사랑이 깃든 영혼입니다. 쓸데 없는 감상과 자학으로 젊은 날을 허비해 버리기엔 살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제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김양의 고통을 비료와 거름으로 삼아 더 큰 나무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살아 남아야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너무 늦은 편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훗날 보다 늙음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나눔터 특집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주는 서신상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신체적인 후유증에 시달린다는데 초점을 맞춰, 강간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인권침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눔터 그림

반쪽이



미혼기의 성

정 경 자(본 상담소 총무)

어느 사회나 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 대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를 정상으로 규정한다. 혼전성관계나 매매춘, 동성애 등은 부도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75년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90%가 혼전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92년 어느 신문사에서 서울 소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미혼남성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혼전성관계는 옳다, 그르다 식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혼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무엇일까? 무엇을 근거로 미혼남녀들은 성경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성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경험과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성인이라면,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와 언제, 어떻게, 왜 성관계를 할 것인가를 신중히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선 모든 성관계는 인격적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격적 관계란 상대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관계다. 요즘 많은 성관계는 기능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관계는 단순히 성충동의 만족을 목표로 한다.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성욕의 도구가 되며 비인격화 된다.

1976년 가톨릭 신학자들은 "자신을 해방하고, 타인을 풍족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수반하고, 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성이라면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어쨌든 성숙한 두 남녀가 진실한 애정에 기반하여 가진 성관계라면 적어도 부도덕하다는 비난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덕적 전제 위에서 미혼의 남녀들은 성경험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꼭 나누어야 할 것이다.

1. 심화되고 풍부해질 수 있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 우리는 서로에 관한 깊은 배려를 가지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3. 성경험이 두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성경험이 상대방에게 끼칠 해악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점이 끝나면 우리 사회의 성규범, 성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은 성을 은밀하게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에 대

한 과도한 기대감을 간직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성은 우리 삶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남녀 모두 성에 건강한 관심을 갖고 성경험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녀의 생리적 구조의 차이나 피임방법도 미리 배워두어야 한다. 성에 관한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흔히 성관계하면 성교를 생각한다. 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에 있으며 두 사람의 사랑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면, 성교 이외에도 손잡기, 입맞춤, 보듬어 안기 등 다양한 몸짓 언어들이 성관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는 미혼남녀에게 각기 다른 성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이중적인 규범들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에서 남녀사이의 자유로운 평등한 성관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결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에 있어 골 깊은 거리가 생긴다. 여전히 여성의 순결은 생명만큼 중요하고 남자들의 혼전성관계는 공공연히 묵인된다. 여자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해도 확실히 결혼할 상대가 아니라면 선불리 성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반면 남자들은 결혼할 의사가 없어도 쉽게 성관계를 생각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스스로의 신중함과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여성들은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어떤 경우든 성관계는 두 사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의 강요에 의한 관계는 '폭력'이지 사랑일 수 없다.

따라서 여성들도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 성관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남자라면 데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상대방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사람,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거나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술이나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는 사람 등. 또하나 성관계를 갖겠다는 결정없이 절대로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지 말아야겠다.

끝으로 성에 대한 낡은 생각이나 왜곡된 통념들을 건강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은 지금 현재 미혼 남녀의 몫임을 명심해야겠다.

비움과 채움으로서의 성

유 명 숙(주부, 딸 하나의 엄마)

나의 첫 성경험은 그 무수하게 난무했던 성에 대한 지식이 편견과 선입견이었음을 아는 것로부터 시작됐다. 10여년간의 굉장한 사건(?)일 것이라는 설레임의 꿈에서 깨어나는 그 기분이란 참으로 어이없음이었다.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또 다른 어떻게 있을거야 하는 기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에 대한 실망이 거듭되면서 성에 대한 환상이 깨져갔다. 그리고 그 환상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성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게는 포르노 비디오에 나옴직한 황홀한 무아지경(?)의 쾌락을 주는 성경험은 없었다. 성을 밥으로 비유한다면 나는 덩덤하게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어본 셈인가! 그러나 성의 그 환상의 자리에 분명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는 하다. 그것은 육체적 결합에서 정신적 결합으로의 승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전자파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아마도 그 전자파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무수한 의미일 것이다.

나는 전자파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에 성의 신비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남녀의 어떠한 욕구가 성행위를 만들어 낼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정말 남성에게는

가득 채워져서 분출하고 싶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여성은 비어서 허전한 공허감을 채우고 싶을 때, 성행위를 통하여 남자는 비워줌으로써, 여성은 채워줌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것일까? 나의 경험으로는 대체로 여기에 공감한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한 쪽의 성이 다른 한쪽을 이끌어 주는 것은 아니다. 비움과 채움은 동시에 느껴지는 느낌일 뿐 어느 한쪽이 시발점이 된다는지 아니면 더 강한 것 같지는 않다.

쾌락적으로 왜곡된 성의 표현에는 정신, 마음 등의 단어가 부채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육체속에 언제나 꺼지지 않고 숨어 있는 불씨를 어떻게 불사르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불씨를 행복이라는 불꽃으로 불사르지 않고 퇴폐적 쾌락으로 불태운다면 그 화염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고독한 존재가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을 가져다 주는 성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 주는 위대함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고 고된 항로에 신이 내려준 축복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읽어 보시다

올바른 사랑의 시작을...

1. 「결혼 에세이」, 박 수선지음, 민맥
형식적이고 상업성에 치우쳐 있는
요즘의 결혼 문화를 지적하며 새 삶을
시작하려는 남녀에게 참된 결혼의
의미를 제시한다.

2. 「남성연구」,
여성모임 사랑(思量) 지음, 나라사랑
현대 남성의 역할과 지위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여성과 남성 서로가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이다.

3.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지음, 문예마당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일상 전체를 냉정한 시각으로
고발함으로써 진정한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소설이다.

4.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7호,
「새로 쓰는 성 이야기」 8호,
또 하나의 문화
사랑과 결혼간의 함수관계와 낭만적
사랑을 다루며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억압과 소외 그리고
해체 현상을 다룬다.

5.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 지음, 현암사
우리 나라 여성들이 깊이 앓고있는
고정관념의 뿌리를 찾아 사례를
분석하며 여성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불안정한 이십대들의 딜레마

김 명 순(여성신문 기자)

“이제 강간 좀 그만하지?”

“성폭력 좀 그만할 수 없어?”

맨 처음 기자 생활을 여성신문 사회부에서 시작하고 한 6개월 쯤 지났을 때 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무시로 들었다. 취재 영역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과 종교, 노동 등이고 보니 자연히 내 관심사가 그런 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것을 두고 평소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우려해서 한 말이다.

강간, 성폭력... 열 번 들어도 결코 유쾌한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내가 사는 사회에서는 너무나 빈번히 일어난다. 짧은 식견으로 그것도 철저히 가부장적인 의식구조 안에서 성장해 온 나에게 그런 영역의 취재는 일종의 고문이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까지도 ‘패팅’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클리토리스’도 몰랐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여자가 매달 생리를 하고 아기를 밑으로 낳는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그렇듯 성적으로 무지한 것을 자랑처럼(?)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어디 이것이 비단 나만의 일이었는가?

이런 의식으로 시작한 기자생활이 쉬울 리 없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기술해야 하겠는데(물론 기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독자에게 전달할 뿐 기사에 주관성이 개입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사작성의 기초이긴 하지만 기사에 접근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기자의 관점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글이 풀리지 않았다. 내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에 대한 통념과 ‘여성신문다운’ 의식과의 맹렬한 싸움 탓이었다.

강간사건을 다룰 때 이런 싸움은 더 맹렬해졌다. “왜 당했을까?” “남녀간의 일은 당사자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등등.....

내 굳어버린 의식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 조선일보 기자실을 찾았다. 그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 성폭력의 양상이 어떤식으로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거기서 나는 대학생 때 당한 성폭력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서른 살이 넘은 나이에 투신자살한 여성과 만났다. 저 세상에 가서는 남자로 태어나라며 남자 수의를 입혀보낸 한 어머니의 피맺힌 울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가 강간당한 후 살해되고 야근에 지쳐 집에 돌아가다 집단유간을 당하고 음독자살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맛보아야 했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스크랩 된 기사위로 눈물만 흘렸다.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런 후에 나는 그녀들에게 말했다.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끝인 것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해서?”

그 후의 일이다. 내가 성폭력 담당기자(?)라는 말을 들은 고등학교때 친구가 어느 날 전화해서 술을 사달라고 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던 아이였고 언제나 선생님들께 칭찬을 독차지 했던 아이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며 만났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내가 알던, “하느님께 선하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 산다”고 말하던 맑은 눈의 아이가 아니었다. 김보은씨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던 때여서 나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때였다.

그 아이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자 나에게 “너 처녀냐”라고 물었다. 심상치 않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무슨 의도냐고 묻자 다시 “너 강간 당해봤니?”라고 칼로 무 자르듯이 물었다. 한

참 서로가 말을 못했다. 아니 나는 그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 다음에 연결된 소리를 이상하게 듣고 싶지 않았다. “죽여버리고 싶어. 꼭 죽여버릴거야.” 붉게 충혈된 눈, 바드득 이 가는 소리,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던 주먹진 손.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서울에 와서 전자 대리점 경리로 들어가서의 일이라고 했다. 대리점 사장에게 “끼소리 못하고 당했다”고 했다.

월급을 주며 “수고했으니 내가 저녁 사겠다”는 소리에 따라 나섰던 것이 화근이었다. 밥만 먹고 돌아섰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했다. “기분도 좋으니 간단히 맥주 한잔 하자”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다시 2차로 연장됐다. 피곤해서 들어가 쉬고 싶었지만 사장 눈에 밟혀서 좋을게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응했단다. 술도 얼마 마시지 않고 술집을 나왔다.

사장이 취해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고 어디가서 쉬어가자고 했을 때도 그러라고 했다. 카페나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는 소리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친구의 그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장의 눈이 야릇하게 빛나더니 근처 여관으로 막무가내로 끌고들어갔다. 고향을 지르고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구원도 청해봤지만 그저 빙글빙글 웃고 지나가더라.

그런 일이 있고 어느새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묘한 것은 자신을 강간한 그 사장에 대한 증오심보다 그저 웃고 지나가 버렸던 그 남성들에 대한 증오심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볼 때마다 “너도 그냥 갈 놈이지, 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재미보러 가는 여자가 한번쯤 부러보는 앙탈이라고 생각했니?” 이런 생각들이 뒤범벅되어 남자라고 생긴 사람은 아무나 죽여버리고 싶단다. “그때 내가 조금만 현명

했더라도, 아니 우리 엄마가 왜 남자는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만 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들 때문에 엄마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밍다”고 했다.

그 아이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 안에서만 술한 말들이 들끓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이고, 이제 는 털고 일어나라고, 쓸데없는 증오심으로 네 젊은 날을 소비하지 말고 그까짓 순결 잃은 것이 무슨 대수냐 등등의 말들이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친구의 술잔을 빼앗아 내가 먼저 취해버리는 일 밖에는.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인생 지침을 말하던 아이 앞에서 나는 울 수도, 그렇다고 어쭙잖은 이해와 설득을 펼 수도 없었다. 어쩌면 평생을 이고 살아가며 끙끙거리지도 모를 짐을 진 스물다섯의 여자 앞에서 스물다섯 또한 똑같이 불안정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살아간다’는 말대신 ‘살아낸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아직 세상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를 나이이긴 하지만 그 동안 겪었던 일련의 일들이 나에게 그런

표현을 쓰게한다. 어쭙잖은 표현이긴 하지만 ‘통념’이라는 완강한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말을 더욱 실감한다. 그러나 통념이 굳으면 굳을수록 그것을 깨야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나는 이제야 이십대가 불안정한 이유가 이십대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고의 변이가 가능한 시기, 사고의 변이를 가능케 하는 시기가 바로 이십대인 것이다. 나는 내 친구와 여성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시달리는 ‘동지’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 불안정함 뒤에 숨어있는 힘의 가능성을 보여주자고.

성문화 읽기

이경자 소설 「혼자 눈뜨는 아침」을 읽고

현 혜 순(본 상담소 교육부장)

이 책이 2권의 분량이라는 데 일단 부담이 왔고, 상권을 읽는 데는 사실 나의 인내가 필요했다. 같은 주부로서 중년인 태경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하지만, 한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없어 하는 주눅들고 위축된 모습에 난 답답하고 자존심 상했다. 공감을 갖기 보다는 작가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너무 감상적으로 처리해 버렸고 사랑이란 단어로 삶의 무게를 신비화하고 미화시켜 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났다. 남편이 준 상처로부터 자신에 대해 눈 뜨기 시작하는 태경이 호준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남편으로부터 인간이기를 선언한 태경이라면 자아를 찾는 노력이 설득력있게 독자들에게 느껴져야지 단지 호준에 대한 무조건적 애착과 집착으로 자신을 더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끼면서 초조하게 호준의 부름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호준을 단비에 비유하며 그 단비를 맞아야만 오들오들 일어나는 풀잎인 태경은 독립적일 수 없다. 호준 또한 태경을 욕심없이 자기를 삭여내는 풀잎같은 생명으로만 여기는 한, 기존의 남녀구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태경이 사랑에 들뜬 감정 때문에, 자신을 추스리지도 그 남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애매모호하게 따뜻하고 부드럽다든지, 촉촉한 목소리, 맑고 깊은 눈동자라는 등의 감정적 느낌밖에 갖고 있지 않다. 남편과의 관계 청산을 포함한 모든 것의 해결능력과 힘은 호준에게서 온다는 식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신화에 내맡긴 채 태경은 남편에게서 또 다른 남자에게로 자신을 의탁하는 것 밖에 안된다.

호준이 갖는 여자에 대한 감정; 즉 여자의 그 무엇도 모른다

는 것, 단지 태경에게서 휴식처같은 편안함, 무조건적으로 주는 어머니를 느끼게 하는 고향같은 여자, 풀같이 자기 희생적이고 부드러운 여자만을 보는 그의 감정과 태경의 남편이 갖고 있는 감정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기 처에게는 냉혹하리만치 무관심하고 잔인한 호준과,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는 존재일 뿐 성적욕구는 밖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태경의 남편은 둘 다 한국사회에서의 가부장적 관념을 갖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억압을 강화시키는 여성상을 요구하고 있다.

단지 태경의 남편은 아내에게 좀 더 권위적이고 야비하고 냉담하며 폭력적인 반면, 호준은 아직까지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럽게 비취진다. 이렇듯 호준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정열에 흥분된 아이처럼, 사랑에 굶주린 태경은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백마탄 왕자”에게서 또 한번의 기회를 잡는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태경이 그 과정에 대해 진지한 탐색을 않은 채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면 이는 결코 작가가 의도했던 여성의 자아 독립과 해방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남성중심적 성관념에 대한 도전과 인간됨의 선전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굴레를 박차고 나오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지 않는 한, 성관계에서의 체위가 여성상위가 된다고 한들 그것은 또 하나의 여성억압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국 이 책은 성해방의 수준은 고사하고 한 여성의 자아에 눈 뜨는 과정조차 보여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중견작가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문제’를 풀어가는 명쾌함을 보여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간해방을 위한 서론

이 승-오(20대 남자 대학원생)

‘성폭력’을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기던 대학 4학년 시절,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친구 덕분에 상담소를 알게 되었다. 처음엔 성폭력상담소의 필요성이나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성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와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그것이 병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현사회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매우 왜곡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의사에 관계없이 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결’이라는 과거의 인습을 내세워 피해자의 잘못된 양 몰아 세운다. 이는 무기든 강도에게 대항 못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성폭력의 책임을 가해자 개인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왜곡된 사회적 통념과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더더욱 큰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문제는 현 사회에서 일순간에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내에서의 황금만능주의와 지배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남성들은 풀리지 않는 욕구불만을 ‘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풀게끔 길들여져 왔고 지배적인 사상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피해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김부남 사건이나 김보은 사건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가해자를 오히려 당당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심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함께 해주고 그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담소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다.

남성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기 보다는 머리로 느끼고 있다. 남성들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고통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상담원도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피해자의 고통에 우선적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24시간 운영되는 성폭력 위기센터의 기능이 첨가된다고 알고 있다. 남성이 저질러 놓고 여성이 뒷처리하는 인상이지만 어차피 같이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여성해방이니 인간해방을 기다리는 한 남성으로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상담소의 활동에 참여하려고 한다.

대동제의 교훈

이 수 현(이대 과학교육과 4년)

이화대학교에서는 해마다 대동제 기간이면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대동제의 꽃인 영산줄다리기를 할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백여명에 이르는 고대남학생들이 둘러싸고는 급기야 신발을 벗어 바닥을 두드리며 고대(!)를 외치는 것이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매년 거듭되는 이러한 집단행동이 이제는 무슨 대단한 전통(?)인 것처럼 자리 잡힌 채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급기야 올해 대동제에서는 ‘지킴이’ - 대동제 때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순찰단 - 가 술에 취한 고대남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이화광장을 끌려다닌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즉시 고대 남학생들의 횡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온 벽을 도배하더니 했다. 그리고 총학생회에서는 항의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고대 총학생회측의 공개 사과문을 받아 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사과문을 받아냈다는 뿌듯함보다는 더욱 큰 갑갑함이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우리 안방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라고 흥분하던 한 선배의 말이 떠오른다. 과연 사과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주범이 ‘남성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의 동기유발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남성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구조화되고 체질화된 사회풍토와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의 장벽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

개인 하나 하나는 무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안을 찾고 모색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올바른 역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상담소의 역할이 단지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사후대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 올바른 여성관에 입각한 올바른 남성관에 대한 - 남성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해야만 절름발이 활동이 아닌 본취지에 맞는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 병 진(본 상담소 상임이사)

1993년 2월 정기 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임명된 민병진 상임이사는 본 상담소와 인연을 맺기 이전에도 '여성의 전화'와 '여성신문'의 남성후원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딸 하나만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딸이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살 수 있고, 성장해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직업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뤄 나갈 수 있는, 남녀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바람에서이다.

민상임이사는 그동안 상담소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차별의식을 개혁하고 여성 스스로를 깨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도 경제력과 직업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며 여성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의 입장에서 상담소에 바라는 것은 주로 성폭력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여긴다거나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인 차이마저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이란 낱말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선량한 많은 남성들의 동참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란 이름을 부드럽게(?) 개칭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민치과의원'의 원장인 민상임이사는 치과건물 3층에 아담한 음악실을 마련하여, 바이올린을 전공한 아내와 더불어 주부들을 위한 클래식 강좌와 음악인들의 소음악회를 여는 등 음악애호가이기도 하다.

정리 : 이 계 중(본 상담소 홍보출판부장)

나눔터 알림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규 후원회원 >

강승현, 박정순, 서성자, 이정화, 이혜옥, 임윤수, 한정석, 명우회

< 기부금 내주신 분 >

김강자, 김진영, 박남순, 손명순, 신창식, 안병무, 이길녀, 전영애, 조영황

< 책을 기증해 주신 분 >

이용교, 이윤희, 이인복, 정복희

< 책을 기증해 주신 출판사 >

계몽사, 고려원, 나라원, 도서출판 새날, 동아일보, 부스러기 선교원

< 물품 기증해 주신 분 >

이미경 - 보온·보냉 물통

<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후원해 주신 분 >

김경원 (내과 전문의, 김경원 내과 원장)
고영만 (전 바른글출판사 대표, 학원 강사)
안준영 (보철 전문의, 안세 치과 원장)

미리보는 상담소

8월 상담원 응급상담과정 교육
성문화 읽기 비평 모임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9월 상담사례연구모임/운영위원회
성문화 읽기 비평 모임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위기센터 요원 모집
위기센터 요원 교육
자원활동자 모임

10월 상담사례연구 모임/운영위원회
성문화 읽기 비평 모임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나눔터 9호 발간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제작
24시간 응급상담 (위기센터 기능)실시

알립니다 : 본 상담소에서는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6월부터 후원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성폭력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 비디오 제작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만든이 : 고경아, 김영아, 소현숙, 연민이, 이계중, 이주현, 장윤경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02) 522-1040~2



유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2-1040~2
법률·의료·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전화상담: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면접상담: 화·목, 오후 2시 - 5시
- 서신상담
- 집단상담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 담 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사무자원활동**: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물 품 기 증**: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 원 회 원**: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조흥은행: 308-01-133092	성폭력 상담소
한일은행: 015-040018-01-001	성폭력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